

교육부 “학습결손 심각 수준…14일부터 등교수업 확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발표

보통학력 이상 비율 모든 교과 하락
소득수준에 따른 학력 격차는 불명
2학기부터 전면등교 추진 방침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결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른 학력격차가 벌어졌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수업 중단은 전세계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면, 최근 미국과 영국 등이 다시 전면등교를 시행하는 추세를 설명하며 우리나라도 이달 14일부터 등교수업을 확대하고 2학기부터는 전면등교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일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통해 “이번 평가 결과로 확인된 학습 결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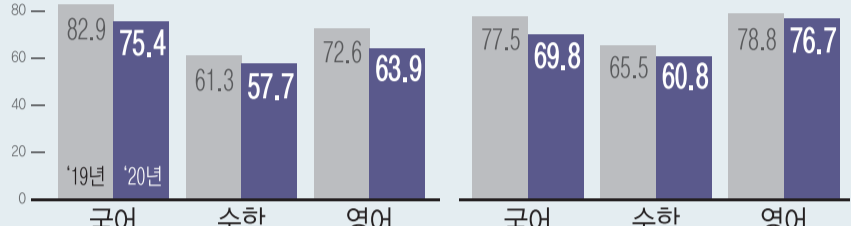
국가 수준 학업 성취수준 비율 단위: %

424개교 중3고2 2만1179명 대상. 2020년 11월 25,26일 조사

기초학력 미달(1수준)



보통학력(3수준) 이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3과 고2 전체 학생(77만1563명)의 약 3%인 2만1179명을 대상으로 교과(국어·수학·영어) 평가와 설문(학교생활 행복도, 정의적 특성, 원격수업 등)으로 작년 11월 25일, 26일 시행됐다. 교과 성취

수준은 ‘우수(4수준)’, ‘보통(3수준)’, ‘기초(2수준)’, ‘기초학력 미달(1수준)’ 등 4개 수준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교과별 성취수준의 경우 ‘보통학력(3수준) 이상’ 비율은 모든 교과에서 하락한 반면, ‘기초학력 미

달(1수준)’은 모든 교과에서 증가했다.

설문조사로 진행한 학교생활 행복도(심리 적응도, 교육환경만족도)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60%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작년엔 전년 대비 중학교(59.5%)는 4.9%포인트 감소했다. 자신감이나 가치, 흥미, 학습의욕을 나타내는 교과기반 정의적 특성 또한 2019년 대비 2020년에 중·고등학교 모두 전반적으로 낮아진 경향이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학계 전문가와 현장 교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충분한 학습이 이뤄지지 못했고 교과 기반 정의적 특성의 하락 등이 학업성취 수준 저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 누적된 결손은 학력 격차를 심화시키므로 성취수준뿐만 아니라 사회·정서 등 비인지적 정보를 포함한 교육성과를 측정하고 환류할 수 있도록 평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 평가에서는 우려됐던 소득수준별 학력수준이 이전보다 더 벌어졌는지 대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아 부실한

평가라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수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개인과외나 그룹과외 또는 학원교습이 더 활발했던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령기 아이들의 학습·정서 등 결손이 단기적으로 학생 성장과 발달에, 장기적으로 사회·국가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대면 수업의 추가적인 확대를 통해 등교일수를 확보하고, 최종적으로 전면등교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학생들의 학습보완뿐 아니라, 학생의 심리·정서 및 사회성 결손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5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한 ‘교육회복 종합방안(가칭)’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확정했다. 또 교육회복 추진 준비단을 바로 발족해 종합적인 지원 대책과 세부 방안을 마련해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등교수업 확대를 위해 복지부 등과 협의해 여름방학 안으로 전체 교직원 대상 백신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대입 수험생인 고3은 방학 중 백신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내년부터 지방의·약대 정원 40% 지역인재 선발

교육부 지방대육성법 위임사항 구체화 올해 초6학년부부터 지역인재 요건 강화

올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강원·제주를 제외한 지방대학 의·약·간호 계열 신입생 10명 중 4명은 지역인재로 의무선발한다. 지역인재 요건은 내년 중학교 입학자부터 크게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월 2일~7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2015학년도부터 권고사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DB

향으로 실시돼 왔으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 요구가 있었다.

이에 지난 3월 공포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 인재 요건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지방대육성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기존 권고 비율인 30%에서 의무비율 40%로 상향된다. 강원·제주는 기존 15% 권고에서 20% 의무 선발로 바뀐다. 2020학년도 기준 지역인재 선발 현황을 보면 의학계열은 40.7%, 약학계열은 43.5%로 이미 40%를 넘는다. 또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모집단위별 입학

인원 규모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인원을 규정하도록 했다.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은 내년 중학교에 입학하는 올해 초등학교 6학년부부터 강화된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였으나,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본인 및 부모 모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등을 모두 충족해야 지역인재로 지원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지역 우수 인재를 지역 내 대학에 진학시키고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지만, 입시전문가들은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는 내 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신대

총장에 강성영 교수 선임

한신대학교 제8대 총장에 강성영 신학부 교수(사진)가 선임됐다.



학교법인한신학원은 5월 31일 이사회를 열고 강성영 교수를 차기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4년간이다.

강성영 신임 총장은 한신대 학사·석사를 거쳐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97년 한신대 신학부 교수로 부임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생명윤리’, ‘문화영성’ 위원회 위원, (사)장공 김재준 목사 기념사업회 이사, 기독교방송(CBS) 시청자위원회 위원, (사)통일맞이 이사, 한국기독교윤리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현진 기자

동국대, 과기부 ‘기초연구실 사업’ 선정

동국대학교는 임현식 물리반도체과 학과 교수팀과 김교범 화공생물공학과 교수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기초연구실 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임현식 교수팀은 가장 6년 동안 약 30억원을 지원받아 ‘하이브리드 나노소재기반 차세대 방사선 센서 및 응용에 관한 연구’에 나선다.

김교범 교수팀은 3년 동안 13억7500만원을 지원받아 ‘유무기 생체소재 기반 면역세포 표면공학 기술을 통한 암 치료 전략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임현식 교수팀은 의료, 국방,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고성능 방사선 센싱 소재 및 이미지 센서 개발



임현식 교수 김교범 교수

을 목표로 한다.

김교범 교수팀의 연구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면역항암용 세포치료제 및 관련 바이오의약 산업 분야의 원천기술 및 지적재산권을 확보, 환자 맞춤형 항암 세포치료 기술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현진 기자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 융합학과’ 신설

한전경영연구원-나라에너지 산학협력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최근 한전경영연구원, 나라에너지서비스와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과기대는 2022학년도부터 ‘미래에너지융합학과’를 신설하고, 국내외 미래 유망 에너지산업을 선도하는 융합형 공학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부문 정착을 위한 첨단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저장장치 등) 기술에 초점을 두고 미래 에너지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고급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과기대는 ▲첨단 에너지 기술·정책 분야 R&D 협력 활성화 ▲교육, 연구인력 등 상호 교류 ▲미래에너지융합학과 재학생에 대한 인턴십 및 산학 프로그램 제공 등 상호 밀접한 교육 협력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서울과기대 창의융합대학은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하고 신기술 혁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신설됐다. 정부의 미래인재 양성정책에 따라 2021년 신설한 인공지능융합학과와 2022년 신설 예정인 지능형반도체공학과, 미래에너지융합학과 등으로 이뤄진 첨단학문 분야 중심 단과대학이다.

/이현진기자 hnj@

숙명여대

25일 온라인 모의논술 실시

숙명여자대학교가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수험생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2022학년도 온라인 모의논술’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모의논술은 시행되지 않고 온라인 모의논술만 시행된다.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기간 내 온라인 모의논술 전용 사이트에서 답안을 작성하고 채점을 요청하면 된다. ‘최종 완료’ 버튼을 누른 순서대로 최대 1200명까지 온라인 모의논술에 응시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